해인총림 제10대 방장 대원 대종사 승좌

4월 17일, 해인사 법계탑 마당서
"중생에 등불 보이는 사표 자리"
"만유중생 깨달음 이끄는 초석"
산불희생자 추모…2천만원 전달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개최된 '제10대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승좌법회'에서 대원 대종사가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수행과 교화의 중심에 서는 자리, 해인총림의 새 방장이 법좌에 올랐다.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4월 17일 해인사 법계탑 마당에서 '제10대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승좌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해인사는 최근 영남 지역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행사 규모를 축소해 법회를 봉행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더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방장스님은 평생 수행과 정진에 헌신하시며 한결같은 청정심과 불퇴전의 서원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 교화에 큰 힘을 기울여오셨다"며 "방장스님의 숭고한 가르침은 해인총림의 법등을 더욱 찬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법가가 울려 퍼진 뒤, 승가대학 학인들의 인도로 대원 대종사가 법좌에 올랐다. 이어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이 법장을, 해인총림 유나 효담 스님이 불자를 각각 봉정했다.

대원 대종사는 법어에서 "오늘 산승이 법상에 오르기 전에 즉시 그르쳤고, 법상에 오른 이후에도 허물이 적지 않으니, 입을 열고 말을 한 즉, 죽은 송장이 산처럼 쌓였도다. 금일 대중 가운데 이 산승의 생명을 구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 말씀 일구를 부탁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한입으로 해인의 봉우리를 마셔 다하니 산호 가지마다 달꽃이 억년의 봄이로다. 금사자가 굴에서 나와 크게 우니 가야산 수많은 계곡이 만겁토록 빛남이라"고 설하며 가르침을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원 대종사께서 이 자리에 오르심은 천년 해인총림의 법등을 삼천세계에 선양하는 뜻이며 일불승 대장정에 있어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늘의 승좌 법석은 법통의 계승을 넘어 천만 생령에게 평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만유중생을 깨달음의 언덕으로 이끄는 불국정토의 초석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자광 스님과 원로의원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진 스님, 보육원에 짜장면 자비나눔

태고종 · 한국미래복지재단
상록보육원 자비나눔 봉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육원 원아들에게 자비가 담긴 짜장면을 전했다.〈사진〉

태고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미래복지재단과 공동으로 4월 11일 서울 상록보육원을 찾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은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태고종 사회복지재단과 한국미래복지재단 관계자들은 짜장면을 직접 만들었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짜장면을 시설 아동들에게 나누며 부처님 자비를 전했다. 배식에 앞서 상진 스님은 상록보육원 시설을 라운딩하며 도서 기부 등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시설 아동들에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며 "화가 나도 참고, 친구에게 베풀며,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긍정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질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태고종단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만들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축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부청하 상록보육원장은 "현재 보육원에는 베이비박스로 온 아이들이 29명, 학대 받아 온 아이들이 19명, 부모 이혼 혹은 사망으로 인해 온 아이들이 7명, 총 53명이 살고 있다"며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태고종의 자비나눔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4월 16일 재난 지원금 전달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사진〉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우석 스님은 지난 3월 20일 열린 화엄사 산중종회에서 차기 주지 후보로 만장일치로 선출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교구발전과 포교에 큰 역할을 해달라"며 "선임 주지스님의 자문을 잘 받들어 교구 운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석 스님은 "현대인들이 문화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화엄사 내에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우석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3000만원과 산불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지원금 1870만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계 산불 복구 염원 기부 행렬 잇따라

전국비구니회, 4월 16일 3000만원
19일까지 고운사, 운람사 등 전달



전국비구니회가 4월 16일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영남 대형 산불로 피해입은 사찰 복구와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발원하며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은 4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은 4월 초 산불 피해 사찰에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고, 수일 내로 사찰은 물론 인근 피해 주민들을 위한 2차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성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스님과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줬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광용 스님은 "올해는 무안공항 참사부터 국가적 혼란과 산불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번 화재 소식에 황망하고 안타까웠다. 산불이 온 국민 가슴을 다 태웠을 정도"라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에 애써 주신 총무원장 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비구니회도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광용 스님은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4월 18일 세종 소방청을 찾아 위로금을 지원하고 19일까지 고운사, 운람사, 석불사, 만장사, 용담사, 보광사 차례로 방문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도 신도들과 함께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피해 복구금 1142만원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피해 사찰이나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꾸준히 포교하는 인천불교회관 덕분에 도심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4월 15일 십시일반 모은 1500만원을 전달했다. 김학규 회장은 "산불 피해 사찰과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모았다"며 "신도회 차원에서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종회 결정 거부하는 동화사 엄중 대응"

중앙종회, 4월 15일 공식입장 발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동화사의 총림 지위 해제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10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하고 다음날인 3월 27일 결의사항을 동화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동화사는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화사는 이어 조계종에 '제233회 임시 중앙종회 팔공총림 해제 재의 요구의 건' '팔공총림 동화사 해제 결의사항 법적 대응의 건'을 접수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4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해제 결의사항 사회법 소송의 건'을 접수하고 다음날 '소청 확인 요청의 건'을 문서 발송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공식 자료를 통해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팔공총림은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림 지정 해제가 결의되어 제9교구 본사 동화사 그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하지만 이후 동화사의 행태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해제된 총림의 직위와 조직명을 계속 사용하며 종단 대의기구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문건을 유포하며 중앙종회 및 종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